

제주드림타워 “38층서 웰컴푸드와 드링크 드려요”

북한리조트 제주드림타워는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홈페이지나 전화, 온라인 여행사(OTA) 등을 통해 객실을 예약한 고객에게 웰컴푸드와 드링크를 제공한다. 리오프닝을 대비한 서비스 고급화의 일환으로 29일부터 9월30일까지 투숙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라운지 38 등 38층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제공한다.



변화하는 기업들의 업무공간

“로봇 배달부터 휴양지 ‘위케이션’까지”

(Work+Vacation)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축소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아울러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실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AI), 5G, 클라우드 등 최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방식을 도입하는가 하면, 하이브리드부터 거점오피스, 위케이션(Work+Vacation)까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업들,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 병행 늘어
NHN, 임직원에게 다양한 고성능 IT 장비 지원
네이버는 제2사옥에 로봇 택배 서비스 적용
CJ·SKT, 제주도·호텔에 거점 오피스 도입

●NHN, 하이브리드 근무환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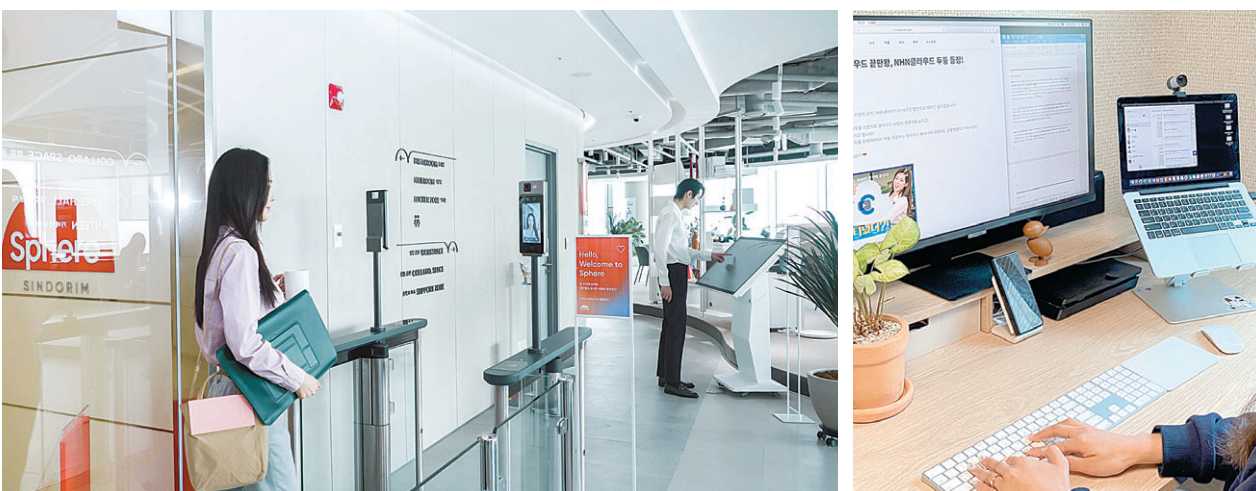
먼저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도입이 늘고 있다. NHN도 그 중 하나다. 지난 1일 출범한 NHN클라우드의 기술 개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 주 4일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NHN드래와와 NHN소프트는 각각 월 2회, 주 8시간의 오피스 근무를 제외하고는 전면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채택했다.

NHN은 임직원들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업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고사양 IT 장비를 지원하는 ‘위드 에셋’ 제도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입사 시 제공되는 PC와 노트북 등 기본 자산 외에 다양한 IT 장비를 추가로 지급받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리후생 제도다. 지원 장비는 최신형 키보드와 마우스, 모니터 등 PC 주변 기기는 물론 웹캠, 헤드셋 등 화상회의 장비와 스탠딩 데스크 등으로 다양화했다.

●네이버 ‘1784’ 로봇친화형 빌딩

AI와 로봇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오픈한 네이버의 제2사옥 ‘1784’다. ‘테크 컨버전스 빌딩’을 콘셉트로 건축된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이다. 업무 공간인 동시에 로봇과 자율주행, AI, 클라우드 등 기술 테스트베드이기도 하다.

1784에는 임직원들에게 배달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루키’가 있다. 클라우드·5G·디지털트윈 기반의 로봇이다. 루키는 택배를 시작으로 도시락과 카페 등 1784 내 다양한 거점에서 여러 서비스를 전개할 계획이다. 1784는 또 스피드게이트와 식당 등에 얼굴인식 기술 ‘클로바 페이스사인’을 적용했다. 출입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배달업무를 하고 있는 로봇, NHN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위해 회사에서 지원 받은 IT 장비들, AI 기반 얼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출입할 수 있는 SK텔레콤 거점오피스 ‘스피어’ 신도림(위 사진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네이버·NHN·SKT

과 업무기기 수령, 결제 시 사원증을 태그하거나 사원을 입력하지 않고 얼굴인식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1784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설계 단계부터 방역관점을 고려하기도 했다. 감염내과 전문의와 산업공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방역자문단’은 1784의 시스템에 대해 병원 수준의 방역체계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일과 휴양 병행하는 실험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점오피스 도입도 활발하다. CJ는 자율적 근무공간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용산 CGV와 중구 CJ제일제당센터 등에 거점오피스 ‘CJ 워크온’을 도입했다. SK텔레콤도 서울 신도림 등에 거점오피스 ‘스피어’의 공식 운영을 최근 시작

했다. 특히 AI기반 얼굴 인식과 5G,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IT 기술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호텔이나 휴양지에 거점오피스를 두고 일과 휴양을 병행하는 위케이션 실험에도 나섰다. CJ ENM은 지난해 제주도 월정리에 거점오피스를 마련하고, 이른바 ‘제주에서 한 달 살며 근무하기’ 지원을 시범 운영했는데, 이를 정규 인사제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기존에 하던 업무를 한 달간 장소만 바꿔 그대로 수행하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SK텔레콤은 7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위커펜 호텔에 위케이션 섹터의 스피어를 오픈해 SK 정보통신기술(ICT) 패밀리가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장익환 LG전자 BS사업본부장(왼쪽)과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전무. 사진제공 | LG전자

LG전자, 미래 인재들과 B2B 신사업 발굴

공모 통해 스타트업 선발…지원금 2000만원 등 제공

LG전자가 유망 스타트업 및 미래 인재들과 협업체 B2B 사업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19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와 B2B 미래 신사업 분야 스타트업 인큐베이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G전자는 한국무역협회, 창업진흥원, 서울·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국내 지원기관 및 액셀러레이터가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한편, B2B 사업에 특화된 스타트업 공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미래 신사업의 파트너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LG전자는 B2B 사업에 특화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5곳을 파트너로 선발하고, 사업화 검증(PoC)에 필요한 지원금 최대 2000만 원과 LG전자의 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한다. 향후 업체의 성과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이나 추가 투자도 검토한다. 스타트업 공모 접수는 한국무역협회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이노브랜치에서 가능하다.

김명근 기자

애경산업 ‘샤이닝화이트 펌프치약’ 선보여



애경산업이 ‘샤이닝화이트 펌프치약’을 출시했다. 치아 브라이트닝 케어는 물론 구취 케어, 충치 및 잇몸질환 예방 등 치아를 건강하고 밝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리미엄 치약이다. 특히 펌프 타입의 용기를 적용해 간편하고도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치아 브라이트닝 케어에 도움을 주는 ‘컬러컨트롤’, 구취 케어에 도움을 주는 ‘브레스블라스트’ 등 2종으로 구성했다.

카카오브레인, 초거대시 이미지 생성모델 공개

카카오브레인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초거대 멀티모달 인공지능(AI) ‘민달리’(minDALL-B)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이미지 생성 모델 ‘RQ-트랜스포머’를 오픈소스 커뮤니티 깃허브에 공개했다. 39억 개의 매개변수(파라미터)로 구성된 ‘RQ-트랜스포머’는 3000만 쌍의 텍스트-이미지를 학습했다. 민달리 대비 모델 크기는 3배, 이미지 생성 속도와 학습 데이터셋 크기는 2배 늘렸다. 특히 민달리의 경우 미국의 오픈AI가 공개한 ‘달리’를 재현하는 것에 가까웠던 것에 비해 ‘RQ-트랜스포머’의 경우 카카오브레인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됐다.

핸드워시 ‘아이! 깨끗해 리미티드 시즌3’ 출시

라이온코리아가 핸드워시 ‘아이! 깨끗해 리미티드 에디션 시즌3’을 내놓았다. 그린티와 리치 등 총 2종으로 구성했다. 장애인근로자와 함께하는 ‘다양성 존중 캠페인’을 추구한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패키지 디자인, 조립, 판매 등에 발달장애인이 직접 참여한다. 제품 패키지에 발달장애인이 작가가 직접 그린 그림을 담았다. 시즌3에는 김승현 작가가 놀이공원을 테마로 화사한 색감의 패키지 디자인을 완성했다.

부고

이기광 대한항공 커뮤니케이션실장 모친상

▲박기원씨(소설가) 별세, 이기광(대한항공 커뮤니케이션실장)·이기민(건축사) 모친상, 김현실씨(은누리교회 부목사) 시모상=1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21일 오전 6시30분, 02-3410-6915



삼성 ‘스마트 모니터’ 누적판매량 100만 대 돌파

삼성전자는 ‘스마트 모니터’(사진)가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 12월 첫 선을 보인 후 약 16개월 만의 성과로, 1분에 약 1.5대 판매된 셈이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M8’의 인기로 힘입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다. 삼성 스마트 모니터는 PC 연결 없이도 업무와 학습 뿐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즐길 수 있는 올인원 모니터다. 삼성전자는 현재 11종의 스마트 모니터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스포츠 사업 본격 확대”…LF, ‘리복’ 국내 판권 확보

고객 니즈에 최적화된 상품군 구성
스포츠웨어 시장 리딩 브랜드 목표



LF가 19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리복’의 국내 판매권 및 영업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리복은 1895년 영국에서 탄생하고 미국에서 급성장한 스포츠 의류 및 용품 브랜드다. 의류, 액세서리, 아동용 아이템까지 품목을 늘리며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는 스포츠 브랜드로 발돋움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LF는 남성복, 여성복, 액세서리, 골프웨어에 이어 급성장하는 스포츠 웨어를 브

랜드 포트폴리오의 핵심 축으로 삼아 패션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포츠가 일상인 소비자가 라이프스타일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의류, 신발, 가방, 모자, 유아동복 등 국내 고객 니즈에 최적화된 폭넓은 상품군을 구성해 스포츠 웨어 시장의 리딩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게 목표다.

김성호 LF 패션신규 사업부장은 “100여 년 역사 속 끊임없는 제품 혁신을 통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리복의 가치를 국내 시장에 각인시켜 스포츠 웨어 비즈니스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글로벌 패션마켓에서 날이 높아지는 스포츠 웨어의 영향력과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발맞출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